

축구

2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976호

벤투호, 아시안컵 대비한 동계 전훈 23명 명단 발표 | 울산 캠프는 세대교체 시험대

벤투호 신형엔진 찾기... '1996' 희망캠프

(벤투호 1996년생들)

축구대표팀 12월 울산동계훈련 소집 명단

| GK(3명) | | |
|---------|--------------|-----------|
| 이름(나이) | 소속 | A매치 기록 |
| 조현우(27) | 대구FC | 11경기/9실점 |
| 김승규(28) | 빗셀 고베(일본) | 36경기/33실점 |
| 김진현(31) | 세레소 오사카(일본) | 16경기/19실점 |
| DF(9명) | | |
| 김민재(22) | 전북 현대 | 11경기/0골 |
| 김영권(28) | 광저우 에버그린(중국) | 62경기/3골 |
| 권경원(26) | 헨진 쉐안젠(중국) | 6경기/1골 |
| 박지수(24) | 경남FC | 1경기/0골 |
| 이용(32) | 전북 현대 | 37경기/0골 |
| 김문환(23) | 부산 아이파크 | 3경기/0골 |
| 박주호(31) | 울산 현대 | 39경기/1골 |
| 김진수(26) | 전북 현대 | 34경기/0골 |
| 홍철(28) | 수원 삼성 | 22경기/0골 |
| MF(6명) | | |
| 황인범(22) | 대전 시티즌 | 6경기/1골 |
| 주세종(28) | 아산 무궁화 | 15경기/1골 |
| 이진현(21) | 포항 스틸러스 | 2경기/0골 |
| 한승규(22) | 울산 현대 | 최초발탁 |
| 장윤호(22) | 전북 현대 | 최초발탁 |
| 김준형(22) | 수원 삼성 | 최초발탁 |
| FW(5명) | | |
| 문선민(26) | 인천 유나이티드 | 11경기/2골 |
| 김승대(27) | 포항 스틸러스 | 5경기/1골 |
| 황의조(26) | 감바 오사카(일본) | 17경기/4골 |
| 나상호(22) | 광주FC | 2경기/0골 |
| 조영욱(19) | FC서울 | 최초발탁 |

※23명·4일 발표

2019 AFC 아시안컵 대비 축구대표팀 주요 일정

| | |
|---------|---------------------------|
| 소집 | 12월 11일 오후 3시 울산롯데호텔 |
| 훈련 | 12월 11~20일(시간미정) 울산종합운동장 |
| 최종트리 발표 | 12월 20일 오후 2시 울산롯데호텔 |
| 출국 | 12월 23일 오전 1시 UAE 아부다비 이동 |

손흥민·이재성 다시보게 된 문선민



문선민

“1년에 50~60경기 뛰면서 유럽서 장거리 이동 대단해”

인천 유나이티드의 문선민(26)에게 2018년은 특별한 한 해다.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에서 14골·6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또 국가대표로도 선발돼 2018러시아월드컵을 경험하기도 했다. 월드컵 이후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 체제에서도 매달 국가대표 소집 때마다 부름을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출전경기가 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소속팀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전부였다. A매치가 있을 때에는 휴식을 취했다. 국가대표에 부름을 받기 시작하면서 쉬는 시간이 확 줄었다.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체력적인 면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문선민은 4일, “월드컵을 다녀온 이후까지도 괜찮았는데, 8월이 고비였다. 날씨가 덥고 습도도 높아서 경기를 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가운데서 문선민은 손흥민(26·토트넘), 이재성(26·휴스턴) 등 동갑내기 선수들을 다시 보게 됐다.

문선민은 “(손)흥민이와 (이)재성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다시 보게 됐다. 흥민이와 재성은 1년에 50~60경기를 뛰다”며 “거기다가 유럽에서 비행기로 장거리 이동까지 하면서 그렇게 뛰고 있는 것 아닌가. 친구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친구에게 내가 많이 배운다. 훈련을 하고난 뒤에 찬물에 들어가 체온을 낮춰 피로가 덜 쌓이도록 회복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라고 설명했다.

문선민은 아시안컵에 대비한 12월 울산 소집훈련 명단에도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다. 그의 겨울 휴가는 일주일 남짓일 뿐이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아시안컵 진출은 내 목표 중 하나다”며 “최종명단에도 포함되어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경 기자 do02@donga.com



황인범

공격엔 나상호·수비진엔 김민재 포진
중원엔 전천후 테크니션 황인범 건재
새 얼굴 한승규·장윤호·김준형 경쟁
젊은 피들, 벤투축구에 녹아들지 관심

한국축구의 신형 엔진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2019 아시안컵(AFC)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할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의 축구국가대표팀은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동계전지훈련을 갖는다.

2018시즌을 끝내고 휴식기에 돌입한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 중인 태극전사 23명이 참여할 울산캠프에서 벤투 감독은 세대교체를 위한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안컵은 물



나상호

론,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포스트 아시안컵'까지 두루 대비한 포석이다.

무엇보다 1996년생 젊은 피들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 대표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의 자원들이다. 공격톱게도 상당수가 중원에 포진했다. 공격라인과 수비진에 각각 K리그2 득점왕 나상호(광주FC), 김민재(전북 현대)가 버티는 가운데 4명이 허리진에 있다.

'전천후 테크니션' 황인범(대전 시티즌)과 올 시즌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한승규(울산 현대), 장윤호(전북), 김준형(수원 삼성)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이들 가운데 6차례 A매치를 소화한 황인범을 제외하면 전원이 최초 발탁이다.

이는 ▲전방위적인 압박 ▲안정적이고 스피드 넘치는 후방 빌드-업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과 맞물



한승규

려 있다. 실제로 벤투 감독은 10월 대표팀 소집부터 A매치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들을 두루 선발하고 있다. 다용도 스트라이커 조영욱(19·FC서울)도 이번에 처음 발탁돼 A매치 데뷔를 기다린다.

하지만 영건들의 실력은 충분하다. 어느덧 불박이 뒀던 지킴이로 등극한 김민재는 물론 A매치 6경기를 소화한 황인범 역시 서서히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나머지도 쟁쟁한 선배들이 준비한 K리그1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 특히 2018카타르월드컵 방아시아게임(AG) 금메달리스트 장윤호는 12경기, 김준형은 5경기를 뛰었다.

대표팀에 새롭게 장착될 신형 엔진이 빠르고 역동적인 벤투 감독의 축구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생존할지 지켜보는 것도 열흘 일정의 울산캠프를 관통할 포인트 중 하나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2019 벤투호 '김진수의 심장이 뛰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김진수는 10월 28일 K리그1 수원전을 통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7개월여 만의 출격.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그는 눈물을 보이며 복받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11월 4일 울산전에 선발 출전해 복귀 골을 성공시켰다. 전북이 2-0으로 앞선 전반 33분 짜릿한

원발 슈트로 상대 골 망을 갈랐다. 항상 벤치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최강희(59) 감독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치며 제사를 축하했다.

당시 김진수의 소감은 짝따만 강렬했다. “(최강희) 감독님이 헨진 쉐안젠(중국) 지휘봉을 잡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동료들과 감독님께 제대로 힘을 불어넣지 못해 죄

송스럽다. 재할 동안 재촉하지 않았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다. 농담으로 격려하시며 편안함을 주셨다. 이제는 2022카타르월드컵에 도전한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다.”

다가 올 울산소집훈련은 김진수에게 희망의 캠프다. 향후 4년을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다. 포지션 경쟁자가 있다. 박주호(31·울산) 홍철(28·수원)과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을 겨뤄야 한다. 다행히 벤투 감독은 김진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실력은 물론, 그라운드 밖에서도 성실한 모습의 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김진수는 “정말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너무 많이 쉬었기에 연내 다시 대표팀에서 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덧붙여 “아시안컵 출전은 장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내겠다. 다치지 않고 내년 시즌을 보내고 싶다”며 “전북의 우승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카타르월드컵 도전의 자격을 증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꾸준함의 대명사 이동국, 불혹의 전설도 ing

(전북)

- 1 필드플레이어 최다 504경기 출전
- 2 11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도전장
- 3 공격포인트 290...타의 추종 불허

1979년생 이동국(39·전북 현대)은 올해도 건재했다. 체력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틈새를 관록으로 메우며 알찬 시즌을 보냈다.

1998년 포항을 통해 K리그에 데뷔한 그는 베르너 브레멘 임대(독일·2000년)와 미들즈브러 이적(잉글랜드·2007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내 팬들과 만났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20년이다. 포항에서 7시즌을 시작으로 상무(2시즌)와 성남(1시즌)을 거쳐 2009년부터 전북 유니폼을 입고 10시즌을 뛰었다.

무엇보다 높이 평가받는 부분은 출전 수다. 포항(123경기)과 상무(51경기), 성남(13경기)에 이어 축구인생의 전성기를 보낸 전북에서 10년 동안 317경기를 소화했다. 불혹인 올 시즌에도 35경기에 출전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이 무려 504경기다. 이는 김병지

(706경기)와 최은성(532경기)에 이어 K리그 역사상 세 번째 대기록이다.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로는 김기동(501경기)을 제친 최다출전선수다.

출전기록은 선수의 성실성을 대변한다. 또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가능한 기록이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동국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는 꾸준함의 대명사가 됐다. 최근 전북과 1년 계약약한 그는 내년에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출전수를 추가해간다.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득점이다. 주로 교체(35경기 중 27경기)로 출전한 올 시즌에도 13골을 기록해 전북의 6번째 K리그 우승을 힘 보탤 예정이다. 이동국은 215골로 K리그 통산 최다 득점자다. 200골 이상은 이동국이 유일



이동국

이동국 연도별 출장 및 득점 기록

| 연도(소속) | 출장 | 득점 | 연도(소속) | 출장 | 득점 |
|----------|----|----|----------|-----|-----|
| 1998(포항) | 24 | 11 | 2009(전북) | 32 | 22 |
| 1999(포항) | 19 | 8 | 2010(전북) | 30 | 13 |
| 2000(포항) | 8 | 4 | 2011(전북) | 29 | 16 |
| 2001(포항) | 17 | 3 | 2012(전북) | 40 | 26 |
| 2002(포항) | 21 | 7 | 2013(전북) | 30 | 13 |
| 2003(상무) | 27 | 11 | 2014(전북) | 31 | 13 |
| 2004(상무) | 23 | 4 | 2015(전북) | 33 | 13 |
| 2005(상무) | 1 | 0 | 2016(전북) | 27 | 12 |
| 2005(포항) | 24 | 7 | 2017(전북) | 30 | 10 |
| 2006(포항) | 10 | 7 | 2018(전북) | 35 | 13 |
| 2008(성남) | 13 | 2 | 합계 | 504 | 215 |

하다. 현역 중에선 외국인 선수 태안(수원)이 186골로 통산 2위고, 국내 선수 중에선 김신욱이 123골(공통 3위)을 기록하고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

올해까지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것도 돋보인다. 전북 유니폼을 입기 전까지 K리그 10시즌을 뛰며 기록한 득점은 총 64골이고, 그 중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시즌은 딱 두 번뿐이다(1998년 11골·2003년 11골). 그런데 전북에 입단한 2009년 22골을 시작으로 올 시즌까지 10년 동안 내리 두 자

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K리그 최초의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 없는 공격력은 안정감을 준다. 내년 시즌에도 10골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구단별 득점 상황을 보면 부산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26골)을 넣었다. 울산(19골) 포항(18골) 경남(17골) 대전 및 수원(이상 16골)과의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빛났다. 득점방법에서는 오른발이 91골로 42.3%이고, 왼발(45골 20.9%) 헤딩(40골 18.6%) PK(오른발 39골 18.1%) 순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전반(87골)보다는 후반(128골)에 더 강했다. 또 후반 중에서도 31~45분 사이가 49골로 한방이 가장 많이 터진 시간대다. 한편 도움도 75개로 통산 2위인데, 득점과 도움을 합친 공격 포인트는 290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북 구단은 이동국을 두고 “선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 평가한다. 드러나는 기록 이상의 존재감을 지녔다는 의미다. 비단 소속구단만의 평가가 아닐 터다. K리그 전체로 봐서도 그의 가치는 빛난다. 내년에는 최강희에서 조제 모라이스(포르투갈) 체제로 전북 감독이 바뀐다. 변화된 환경에서도 이동국이 전설의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